

June 17, 2015

Global

2020년까지 세계 종자의 시장 동향 예측 보고서

글로벌 종자시장은 유형(곡식&곡물, 지방종자와 과일&야채)에 따른 종자 시장과 종자 형질(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다른 복합형질) 그리고 지역별-글로벌 동향 및 전망에 대한 Markets and Market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9.4 % 증가세로 2020년에 920억 4,000만 달러에 도달 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2014년 보고에 의하면, 세계 종자 시장은 북미가 지배하였는데, 전체의 32.6%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많은 인구조로 인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높은 생산성과 이윤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식량과 최신 농업 기술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인도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농업 촉진 기술 활성화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자 시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곡식과 곡물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자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arkets and Markets](#)

Africa

생명공학 전문가들, GM제품의 규제에 대한 강한 연계를 촉구

집바브웨의 하라레에서 지역 바이오안전성 교육 워크숍 동안에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의 생명공학 수석 고문인 Getachew Belay 박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GM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별 바이오안전성 규제 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 생명공학(Regional Biotechnology)과 바이오안전성 프로그램(Biosafety Programme)을

통해 COMESA가 주관하고 국가생명공학기구(NBA)가 후원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76여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바이오안전성 문제는 사실상 지역적이며, 환경적 영향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퍼질 수 있다.. 식품 안전성 문제는 일반 소비 패턴과 함께 세계 모든 나라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역의 전문 지식과 인프라 공유를 위해 지역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고 Belay 박사가 말했다. 그는 또한 정보 공유와 GM 제품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 적절한 협력이 대륙간의 바이오안전성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ll Africa](#)

Americas

잔디, 모델식물로 애기장대를 대체할 수 있어

미주리 대학의 연구진들은 질소 의존성이 적은 식물로 단순한 형태를 가진 잔디과 강아지풀 (*Setaria viridis*)의 연구를 통해, 작물과 이 작물이 매일 필요로 하는 질소의 양을 제공하는 질소고정 세균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연구를 통해 식물 뿌리 표면 접촉을 통해 강아지풀(*S. viridis*)은 박테리아균인 *Azospirillum brasilense*로부터 필요한 질소양의 10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강아지풀은 잔디과 친척으로 알려진 작물인 옥수수, 벼, 사탕수수같은 작물들에서 유사한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를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작물이 될 수 있다. 미주리 대학 연구진들은 브라질과 뉴욕의 브룩 헤이븐 국립 연구소의 연구진들과 함께 식물과 박테리아간의 상호작용과 질소 흡수와 관련된 유전자를 강아지풀에서 찾는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U website](#)

Asia and the Pacific

이란, BT 면화 생산 예정

이란의 BT 면화 첫번째 샘플이 이란 생명공학회가 주관한 제 9회 국가 및 제1회 국제 생명공학회 개막식에서 발표되었다. 이 BT 면화는 1000여명 참석자와

세계식량상 수상자인 Marc Van montagu 박사가 보는 앞에서 농림부 장관 Mahmoud Hojjati와 학회 대표이자 생명공학 개발 의장인 Mostafa Ghanei박사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란 농업생명공학연구협회(ABRII) 대표 Seyyed Elyas Mortazavi박사는 Bt 면화 프로젝트는 1999년에 이란에서 시작되었으며, Bt 면화는 헥타르 당 최대 6톤까지 수확량을 증가시키며 non-GM 품종 보다 최소 30% 이상 많다고 덧붙였다.

이 BT면화 품종은 내건성 형질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러스 병에도 저항성을 가진다. BT면화의 잠재적인 도입은 하산 대통령의 취임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이란에서의 BT면화 재배가 곧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hareyazie@yahoo.com

Research

벼 유전자 OsGrAS23, 가뭄 스트레스 반응에 관련

GRAS 전사인자는 식물 발달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다. 하지만, 벼에서 확인된 일부 GRAS 유전자들의 기능들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특히 벼의 내건성과 관련하여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화중농업대학의 Lijun Luo박사는 벼로부터 OsGRAS23라는 새로운 GRAS 전사인자 유전자를 분리했다.

OsGRAS23의 발현은 가뭄, 염, 재스몬산 처리에 의해 유도되어짐이 밝혀졌다. OsGRAS23과발현 벼는 내건성 및 산화스트레스 내성의 증진뿐 아니라 야생종보다 과산화수소 축적이 적음을 보여주었다. 추가 분석에서는 항산화 관련 여러 유전자들이 OsGRAS23 과다발현 벼에서 상향조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OsGRAS23 유전자는 스트레스 반응 유전자들의 유도를 통해 벼 내건성을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스트레스 반응성 GRAS 전사인자를 암호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her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MC Plant Biology](#)

Announcements

한국육종학회

주제: 2015 한국육종학회

주관: 한국육종학회,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 골든씨드프로젝트

장소: 한국, 부산, 벡스코

일시: 2015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The Korean Society of Breeding Science](#)

Announcements

RNAi Product 안전성평가 세미나

주제: RNAi Product 안전성평가 세미나

주관: 크롭라이프코리아, GM작물개발사업단

장소, 한국, 서울상공회의소

일시: 2015년 6월 18일

주제:

- 해충 방제를 위한 RNAi 이벤트 (RNA 간섭 메커니즘 포함)
- 구성성분 개선 RNAi 이벤트
- 미국의 RNAi 제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 호주의 RNAi 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성 평가
- RNAi 기술적 메커니즘과 RNAi 제품 소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Korea Biotechnology Information Center](#)